

일본의 근세 시대 : 15세기~19세기

2019년 11월 16일

김가연(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수료)

제4장 근세의 일본 제2절 에도막부의 성립과 쇄국

110쪽

여성화자: 이 그림은 어떤 화자들이 좋아했던 것일까

- ① 카라지시(唐獅子) 그림 병풍(도쿄도 궁내청 산노마루 쇼 고관 소장): 카노우에토쿠의 대표작으로, 암수의 당 사자가 걷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힘차고 화려한 작품입니다.
- ② 히메지 성(대천수의 높이는 46.4m):아름다운 흰 벽으로부터 하쿠로 성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5층의 대천수와 세가지 작은 천수가 모여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효고 현 히메지 시)
- ③ 센노 리큐(1522~1591): 사카이의 상인 출신으로 다도에 뛰어나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임명되었습니다만, 히데요시로부터 자살을 명받았었습니다.(하세가와 토우하쿠 그림, 교토부 오모테센가 후신양 소장)
- ④ 묘우키안타이안: 센노 리큐가 조성했던 다실로써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미닫이 아래에는 자신의 작은 출입구라고 하는 작은 입구가 있습니다.(교토부 오오야마자키쵸)

6. 모모야마(桃山)문화-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문화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요?

▷ 호화하고 웅장한 문화

전국을 통일한 정권이 출현했던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는 중세 사회의 구조가 무너지고, 사회에 활기가 넘쳤던 시대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게 되고, 금과 은의 산출도 증가하여 하극상으로 갑자기 출세했던 다이묘와 대상인들은 그 권력과 부를 배경으로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번성한 문화를 모모야마 문화라고 합니다.

모모야마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즈치성과 오사카성 등의 웅대한 성입니다. 이들 성에서는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높게 치솟은 천수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실내에는 서원조(書院造¹)을 도입해 기둥과 난간에는 화려한 조각을 하여서 후츠마야나 병풍에는 카토우 에이토쿠와 제자인 카토우 산라쿠 등의 화가에 의한 밝

고 아름다운 경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도는 다이묘와 대상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어 유행하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던 다도가 평가가 높은 것이어서, 다이묘의 영지와도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겼던 센노 리큐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 명예와 부보다도 내면의 정신성을 중요시하여, 아름다운 다도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리큐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용품이었던 향아리를 차 향아리로서 귀중하게 하는 등 독창적인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111쪽

사회 전체에는 현실의 생활을 즐기는 풍조가 강해서, 연애 등을 노래하는 소가가 유행하고, 무로마치시대에 비파 등과 합해져 사랑이야기 등을 이야기하는 죠우리(浄瑠璃)가, 류큐(오키나와 현)로부터 전등되었던 삼선을 기초로 만들어진 샤미센을 연구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이즈모의 오쿠니라는 여성이 시작했던 카부키 무용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의복에서는 기모노의 아래에 입었던 코소데(小袖)를 일상적으로 입게된 것처럼, 목면이 삼베에서 바뀌어 서민의 의복 재료로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 유럽문화의 영향

전국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시대에 걸쳐, 남만무역이 성행하여 빵, 카스테라, 카루타²⁾, 시계 등도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포교활동을 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사에 의해 천문학과 의학, 항해술 등, 새로운 학문과 기술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는 카노(狩野)파의 화가에 의해 나가사키의 남만선 입항의 모습이 그려지는 등 유럽풍의 그림도 그려져 종교 그림 등도 제작되었습니다. 활판 인쇄술도 전래되어 성서 등 포교에 필요한 서적과 ‘헤이케 이야기’ 등의 일본의 서적이 로마자로 인쇄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사슬이나 단추, 주름에 있는 것이 달린 유럽풍의 의복과 장식품을 몸에 두르는 유행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던 예술과 유행의 풍속을 남만 문화라고 합니다.

⑤ 남만풍의 풍속(가부키도 권 도쿠가와 미술관 소장): 와식의 위에 주름이 있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새로운 패션으로서 유행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도 전해졌습니다.

⑥ 산신(三線, 산신모리시마 개종‘케-쥬-’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 미술관 소장 길이

1) 室町 시대에 발생하여 桃山 시대에 발달한 주택 건축 양식(선종(禪宗)의 서원 건축 양식이 公家나 무가(武家)의 집에 채택되어서 생긴 것으로 현관·床の間·선반·장지문·맹장지가 있는 집 구조; 현재 일본 건축의 주택은 거의 이 양식을 따름).
2) carta(포르투갈어) 화투, 트럼프와 같은 놀이딱지

76.5cm): 중국의 현악기가 기원이라고 하며, 고급진 것에는 뱀 가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샤미센은 산신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고양이나 개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⑦ 로마자로 쓰여진 '헤이케 이야기'(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시립 아마쿠사 키리스탄 관 소장): 16세기 말에, 아마쿠사(구마모토현)의 예수회의 학교로부터 발행되었습니다. 전체가 로마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책상>

모모야마 문화의 특색을 다음 두 가지 점으로부터 각각 20자 정도로 설명해보세요.

1. 담당자가 된 사람들. 2. 외국의 영향

제 2절 에도막부의 성립과 쇄국 (112~119쪽)

1. 에도막부의 성립과 지배의 구조
에도막부의 성립/막부체제의 확립/다이묘와 조정의 통제
2. 다양한 신분과 생활
무사와 마을 사람들(町人)/마을과 백성/엄격한 신분제 의한 차별
3. 무역의 진흥에서 쇄국으로
주인선(朱印船)과 일본의 마을/금교(禁教)와 무역의 통제 강화/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一揆)과 쇄국
4. 쇄국 하의 대외 정책
중국과 네덜란드/조선과 류큐왕국/아이누민족과의 교역

112쪽

남성화자: 이성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 ① 에도성(에도그림 병풍, 치바현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 시기의 에도성으로 5층의 천수가 치솟아 있다.
- ②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 토치기현 닛코도우쇼궁 왕실 보물관 소장)
①가신(家臣)으로는 직접 쇼군을 만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타모노(旗本), 그렇게 할 수 없는 고케닌(御家人)이 있고, 하타모노가 약 5000인, 고케닌은 약 1만 7000인이 있었습니다.

<공책> 「오다(織田) 다음으로 하시바(羽柴, 히데요시)가 반죽한 천하라는 떡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는다」라고 불린 노래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
- 3) 朱印船: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해외여행허가증(朱印)을 얻어 해외 교역을 하는 배. 주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동남아 국가와 교류를 하였다고 한다.

제2절 에도막부의 성립과 쇄국 (112~119쪽)

1. 에도막부의 성립과 지배의 구조- 에도 막부는 어떻게 전국을 지배했던 것일까요?

에도막부의 성립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관동을 영지로 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력을 펼쳤습니다. 1600년,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정권을 지키고 있던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등의 다이묘에게 호소하여 이에야스에게 대항하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야스도 미츠나리에게 반발한 다이묘를 아군으로 포함해서 전국의 다이묘는 각각 미츠나리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과 동군으로 분열되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세키가하라 전투, 関ヶ原の戦い). 이것에서 승리한 이에야스는 전국 지배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1603년 이에야스는 조정으로부터 정이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에도(동경부)에서 막부를 열었습니다. 에도막부는 260년 동안 전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를 에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에야스는 1614~1615년 두 차례에 걸쳐 오사카의 진을 치고 있던 도요토미 씨를 멸망시키고, 막부의 세력을 견고히 했습니다.

막번체제의 확립

막부의 직접 지배지(바쿠료, 幕領)은 약 400만석으로, 자신의 영지를 합친다면 전국의 수확량의 약 3000만석에서 대략 4분의 1을 쥐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토, 오사카, 나라, 나가사키 등의 중요한 도시와 주요 관산을 직접 지배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권리를 독점하였습니다. 또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를 건축하여

113쪽

가도에는 숙박시설을, 중요한 장소에는 관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에도시대의 다이묘는 쇼군으로부터 1만석 이상의 영지를 하사받은 무사를 지칭해 다이묘의 영지와 그 지배 구조를 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이묘으로는 신판(친번, 親藩)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⁴⁾, 토자마 다이묘(外様大名)⁵⁾가 있었습니다. 막부는 번을 없애버리거나 영지를 베푸는 힘을 다루고 있어, 토자마 다이묘(外様大名)를 에도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등 다이묘의 지위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정치는 쇼군이 임명했던 로쥬(老中)가, 와카도시요리(若年寄)가 보좌했습니다. 로쥬와 와카도시요리 외에는 삼 부교(절과 신사 부교, 마을 부교, 칸쥬 부교)를 비롯한 많은 임직이 설치되어, 후다이 다이묘와 하타모노를 임명하였습니다. 도자마 다이묘

4)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장악하기 이전부터 대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을 섬겨온 다이묘들.

5) 에도시대부터 세키가하라 전투 후 이에야스 家를 섬긴 다이묘들.

가 막부의 임명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묘와 조정의 통제

막부는 부케쇼햏토(무가제법도, 武家諸法度)라고 하는 법령을 정해서 다이묘가 허가하지 않은 성을 수리하거나, 다이묘끼리 무단으로 입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이묘의 산킨(參勤, 에도로 오는 것)은 주종관계의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 제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는 산킨고타이(參勤交代)를 제도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이묘는 1년 간격으로 영지와 에도를 왕복하는 것이 되어 그 비용과 에도에서의 생활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막부는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를 설치하여 조정을 감시하고, 긴추나라비니쿠게쇼햏토(금중병공가제법도, 禁中並公家諸法度)란 법령으로 천황과 공가의 행동을 제한하여 정치에서 우위의 힘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③ 에도 막부의 구조

④ 막부와 여러 다이묘 영지 비율

⑤ 주요한 다이묘의 배치: 친번은 쇼군 가의 친척으로 오와리, 키이, 미토는 「어삼가」로 불리며 존중받았습니다.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던 다이묘, 토자마 다이묘(外様大名)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부터 이에야스 가를 따르던 다이묘입니다.

⑥ 도쿠가와와 계도

② 막부와 번의 세력에서 전국의 토지와 민중을 지배한 정치제도를 막번체제라고 부릅니다. 번은 하타모토(旗本)가 다이묘로 등용하게 되어 다이묘가 분가하게 되면서 수가 증가하여 에도시대 후기에는 약 270家が 되었습니다.

⑦ 부케쇼햏토(무가제법도, 武家諸法度): 일, 학문과 무도에 오로지 정신을 표출하십시오. 일, 여러 나라의 성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막부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하물며 새로운 성을 건축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일, 막부의 허가 없이 혼인을 맺지 않는다 ←부케쇼햏토(무가제법도, 武家諸法度)는 쇼군직을 내려놓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15년에 정한 법령으로, 이후 쇼군의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책상>

다이묘와 조정을 비교하여 에도막부가 커다란 힘을 가지게되었던 이유를 지배했던 영지와 경제의 면에서 설명해보시오.

114쪽

<여성화자> 신분에 의해 어떻게 다른 것이 있을까?

① 신분 구별(사농공상 풍속 그림 병풍, 도쿄도 산토리 미술관 소장) 무사(A)는 특권으로 자처하며, 크고 작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 받았습니다. 백성(B)은 농

업과 어업, 임업 등에서 생활하여 마을사람(C,D)는 상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 ② 신분별 인구의 비율(사키야마나오 타로우 「근세 일본의 인구 구조」): 그래프는 에도시대 후기의 것이지만, 에도시대 중기부터 인구는 크게 변화 되어졌습니다.
- ③ 도시(위)와 농촌의 지배 구조

2. 다양한 신분과 생활-에도막부는 어떻게 하여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일까.

무사와 마을 사람들(町人)

타이코우켄치(太閤檢地)와 카타나가리(刀狩)등에 의해 정해진 신분은 에도시대가 되어 더욱이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은 무사와 백성, 마을 사람으로 크게 분리하여 에도와 다이묘의 성안의 마을에는 무사와 마을 사람이 모여졌습니다. 무사는 주군으로부터 영지와 쌀을 지급받아 녹봉(俸祿)을 대대로 수여받아서 군역 등의 의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무사는 이름·복도 등의 특권을 가져 지배 신분으로서 명예와 충의를 중요시하여 도덕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사도」라고 부릅니다.

마을 사람은 막부와 번에서 영업세를 내면서 마을마다 나누시(名主) 등의 마을 관리인이 선택되어 자치를 하였습니다. 마을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지주와 세대주에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입자는 일용노동자나, 행상 등으로 모집되어 상가의 봉공인이나 장인의 제자는 어릴 적부터 주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을 배우고 독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을과 백성

백성은,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여, 생활은 자급자족에 가깝게 하였습니다. 백성으로는 토지를 소유한 본백성(本百姓)과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소작하는 미즈노미 백성과 구별하여 유력한 본백성은 쇼우야(庄屋, 또는 名主)와 조장(組頭), 하쿠쇼다이(百姓代)등의 마을 관리인이

115쪽

되어 마을의 자치를 하고, 연공을 징수하여 막부와 번을 연결하였습니다. 연공은 주로 쌀로 취해졌습니다. 막부와 번은 마을의 자치에 의지하여 연공을 취하고, 재정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안정적이게 연공을 취하기 위해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한정하는 등 규제를 정하였습니다. 또 오인 구조의 제도를 만들어 범죄의 방지와 연공의 수입을 연대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임야와 용수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모내기 등도 서로 도와서 관습과 모임에서 정하였던 규칙을 깬 사람에게는 장례식 등 이외는 협력하지 않는 무라하치부(村八分)라고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신분에 의한 차별

백성, 마을 사람이라는 구별은 에타⁶⁾신분, 히닌⁷⁾신분 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타신분은 농업을 하여 연공을 내는 것 외에 죽은 소·말의 해체와 피혁을 얻는 일, 셋타(설피, 雪駄)를 만들거나 잡업 등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또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일과 옥졸 등의 관리인의 하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히닌 신분도 관리인의 허드렛일이나, 예능, 잔업 등으로 생활했습니다.

이들 신분의 사람들은 다른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엄격하게 차별받고, 마을의 운영과 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막부와 번은 거주하는 장소와 직업을 제한하여 복장 등의 규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해서 이들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 ④ 백성의 생활 마음가짐: 막부가 1649년에 출시하여 전한 32조의 고시문으로서 백성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침 일찍 일어나 풀을 베고, 점심에는 전답을 경작하고, 저녁에는 물레질을 하여 바구니를 뜨며, 각자의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집중해라. 하나, 술이나 차를 사먹지 말도록 해라. 하나, 백성의 의복은 아사토 목화로 한한다.
- ⑤ 연공 납부(마루야마 오우쿄 그림, 시치난 시치후쿠그림 책, 교토부 쇼우코쿠사 소장): 백성이 납입 했던 연공은 무사가 입회함으로서 중요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연공 외에 노역도 짊어졌습니다.

<꽃>

여성에게의 교육

에도시대에 널리 읽혀졌던 「온나다이가쿠(女大学)」라고 하는 서적에는 여성의 직 무로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등이 교훈으로서 적혀져 있습니다. 여성은 아들을 낳아 집안을 지키는 것뿐만 기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농촌에서는 여성은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고, 도시에서도 다이묘 저택 등에서 일하며 자립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 ① 연공의 비율은 4공 6민(수확량의 10분의 4를 연공으로서 취함)과 5공 5민이라고 하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만 생산력의 향상에 따라 점차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 ⑥ 셋타(설피, 雪駄) 만들기(오사카 인권 박물관 소장): 설피는 에도시대에는 고가였지만, 인기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재료는 대나무 껍질과 소와 말의 가죽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6) 穢多(えた): 천민, 동물을 도축하여 가죽이나 고기 등을 얻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
7) 非人(ひにん): 천민, 방랑자, 부랑자.

<책상>

거리와 마을의 경치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을까,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해보시오. (쇼우야(庄屋 또는 나누시(名主))/ 마을 관리인/ 자치)

116쪽

남성화자: 이 주인선은 어떤 나라까지 갔고있던 것일까.

- ① 주인장(안남국도해 주인장, 도쿄부 마에다 이쿠토투카이(育徳会) 소장)
- ② 주인선(기요미즈데라 스에츠구센에마시타에,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 ③ 주인선의 항로와 일본 마을: 일본 마을에서는 자치가 인정되고 있어, 최대의 일본 마을로 불리었던 아유타야에는 약 1,500인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시험해 보자>

①의 주인장 중간에서 나라 이름을 찾아 그 위치를 ③의 지도에서 확인해보자.

- ④ 야마다 나가마사(山田 長政, ?~1630): 스루가(시즈오카 현)의 출신으로, 아유타야의 일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샴⁸⁾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만, 전쟁에 패하여 독살 당했습니다.(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센켄 신사 소장)
- ⑤ 앙코르와트(캄보디아)의 벽에 그려져 있는 일본어: 왼쪽 사진은 1632년에 히라도(平戸)번사의 모리모토 카즈후사가 쓰여져있는 것입니다. 우측하단에 「일본」의 글자가 보입니다.

3. 무역의 진흥에서 쇄국으로-에도막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일까?

주인선(朱印船)과 일본의 마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역의 발전에 힘써, 도항을 허가하는 주인장을 발행하여 루손, 안남(베트남), 캄보디아, 샴(타이) 등으로 주인장을 가진 배(주인선)의 보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교토와 사카이(오사카부), 나가사키 등의 상인과 서일본 다이묘의 중심에서는 주인선 무역을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각지에 니혼마치(일본인마을)가 생겼습니다. 또 이에야스는 새로이 내향했던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로부터의 무역 요청도 허하였습니다. 히라도(나가사키현)에 상인들의 여관이 설치되어 네덜란드, 잉글랜드와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입품은 중국산 생사와 견직물이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산 염료와 상아도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은을 중심으로 칼과 공예품을 수출했습니다.

8) シャム(Siam): 샴, 타이의 옛이름

금교(禁敎)와 무역의 통제 강화

이에야스는 무역의 이익을 위해 크리스티교의 포교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크리스티교의 신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막부는 1612년, 막부영지에 크리스티교 금지령(금교령)을 내려 다음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의 신앙을 영주의 충의보다도 중시하는 크리스티교의 교리가, 막부

117쪽

의 생각과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1579~1632)는 금교령을 강화하여 신앙을 버리지 않는 많은 크리스티교 교주를 처형하였습니다.

1635년,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 1604~1651)는 주인선 무역을 정지하는 것과 함께, 일본인의 출국과 귀국을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하다에는 데지마를 건축하여, 포르투갈인을 이주시켜 일본인과 교류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중국선이 나가사키 이외의 항구에 오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一揆)과 쇄국

크리스티교 교주의 박해와 무거운 연공의 매입으로 어려웠던 시마바라(나가사키 현)와 아마쿠사(구마모토현)의 사람들은 1627년, 신의 사자로서 여겨졌던 아마쿠사 시로우(天草四郎, 마츠다도키사다(益田時貞))이라고 하는 소년을 대장으로 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다음 해, 이것을 진압했던 막부는 1639년에 포르투갈 선의 내항을 금지하여 다이묘에게는 연해의 경비를 명하였습니다. 1641년에는 히라도(平戸)의 네덜란드 상인 여관을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국선과 홀랜드 선만이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막부에 의한 금교, 무역 통제, 외교독점의 체제를 쇄국이라고 부릅니다. 쇄국은 후에는 「조법(선조전래의 법령)」이라고 이야기되게 되었습니다.

막부는 개종한 크리스티교 교주를 감시하고, 크리스티교 교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후미에⁹⁾를 하였습니다. 또 슈몬아라타메(종문개, 宗門改め¹⁰⁾)에서 불교 신자인 것을 증명하게 해서 장례식도 절에서 하게끔 하였습니다.

⑥ 쇄국으로의 걸음

⑦ 저항하는 반란군(우측)과 아마쿠사시로의 전쟁 깃발(오른쪽: 시마바라 그림 병풍

9) 絵踏み(えふみ 또는 ふみえ): (江戸 시대에) 기독교도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기 위하여 밟게 했던 그리스도·마리아 상 등을 새긴 널쪽; 또, 그 널쪽을 밟게 한 일(사상 조사 따위의 수단으로도 비유됨).

10) 宗門改め(しゅうもんあらため): 江戸 시대에 기독교 금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한 전 국민의 신앙 조사.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아키즈키 박물관 소장, 위쪽: 린즈지차쿠쇼쿠세이타이히 세키즈사시모노(편지지저색성체성사도지물, 綸子地著色聖体秘蹟図指物), 구마모 토현 아마쿠사 시립 아마쿠사 크리스찬관 소장. 폭 108.6cm): 막부는 약 12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었지만, 약 3만 7,000명의 반란군의 저항에 고전을 맞아 이것을 평정시키는 데에 4개월이 걸렸습니다.

⑧ 후미에(踏み絵, 동경국립박물관 폭 18.8cm): 나가사키에서는 관리인의 앞에서 그리스도와 성모마리아 상을 뛰어넘기가 매년 정월의 행동으로써 에도시대 말기까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① 잉글랜드는 무역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상인 여관을 폐쇄하여 일본을 떠났고, 스페인은 포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② 지금까지 관계하고 있던 나라 이외와는 국교를 여는 통상을 하지 못하게 한 체제는 「쇄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19세기 초까지였습니다.

⑨ 종문개장(宗門改帳(후츠히키리시탄 종교개장 후쿠이현 에치젠시립 중앙도서관 소장): 종파별로 절이 작성하여 후적의 역할도 부여하였습니다. 절은 인솔과 결혼, 여행 등으로도 신자인 것의 증명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책상>: 에도막부가 쇄국의 체제를 견고하기까지의 흐름을 다음 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해보시오(금교령, 데지마,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118쪽

여성화자: 데지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① 나가사키의 데지마(간분 나가사키 그림 병풍,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소장): 데지마는 면적이 약 1만 3,000㎡의 인공 섬입니다. 데지마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인과 출입가능한 상인 등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하였습니다.

② 쇄국 하의 창구: 청-나가사키, 조선-대마도, 나가사키-네덜란드, 사쯔마번-류큐, 마크마에 번-에조치

③ 데지마에서 빌리어트를 즐기는 네덜란드 인(한양 나가사키 거류 그림책, 「관관도」 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 네덜란드인은 평상시 데지마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되었기에 데지마 안에서 배드민턴, 볼링, 빌리야드 등의 오락을 즐겼습니다.

① 이리코(해삼을 찌서 말린 것)과 말린 전복, 상어의 지느러미 등의 해산물로써 중국 요리의 중요한 식재료로 되었습니다.

4. 쇄국 하의 대외 정책-에도시대의 일본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있었던 것일까? 중국과 네덜란드

17세기 반 경 중국대륙에서는 국내의 반란에 의해 명이 멸망하고, 중국 동북주의 여진족이 건국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쇄국에 의해 일본인은 해외로 가는 것을 할 수 없었기에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던 일본마을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에 상질의 생사와 견직물, 동남아시아의 물건을 필요로 하고 있어 중국인과 크리스찬 교의 포교를 하지 않는 네덜란드인과는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에도막부는 무역에 의해 금과 은을 대량으로 유출한 것을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점차 제한하여 대신에 동과 표물(倭物)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막부는 네덜란드인을 유럽과 아시아의 정세를 보고하게 의무(홀랜드 풍설서)을 주어 중국인에도 당선 풍설서를 제출하게 해 해외의 정보를 독점하였습니다. 유럽의 물건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류큐왕국

에도 막부의 성립 이후, 츠시마번(나가사키현)의 노력으로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에 국교가 회복되어 쇼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축하하는 사절(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300인부터 500인에 이르는 통신사의 일행

119쪽

가운데에는 일류의 학자와 예술가도 있어 각지에서 일본의 학자와 교류하였습니다. 츠시마번은 조선의 부산에 설치하였던 왜관이라고 부르는 거류지에 관리자를 파견하여, 조선과의 연락과 무역을 이행했습니다. 수입품은 목면과 조선의 인삼, 견직물 등이며, 수출품은 은과 동 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독립국이었던 류큐왕국(오키나와현)은 사쯔마번(카고시마현)에게 공격받아 복속되었습니다만, 막부는 류큐를 다른 나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독립국으로서 명과 청나라에 조공하고 무역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쯔마번은 관리인을 류큐에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행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사쯔마번은 쇼군과 류큐왕국의 대가 바뀌면 류큐로부터의 사절을 에도로 연결할 수 있어 쇼군의 면회를 하게하였습니다(류큐사절).

아이누민족과의 교역

에조치(홋카이도)에는 아이누 민족이 살고있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어업 등을 하면서 일본인뿐 아니라 치시마 열도와 카라후토(사할린), 중국대륙의 흑룡강성 지역의 사람들과도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에조치의 남부에 영지를 가진 마츠마에 번은 막부로부터 아이누 인들과의 교역을 독점을 허가받아 쌀과 식기 등의 일용품, 연어와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교환하고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불만도 있어 아이누 사람들은 17세기 후반에 수장의 샤쿠샤인을 중심으로 마츠

마에 번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패배하였습니다.

<역사에 접속> 조선통신사가 방문했던 대조루(對潮樓)

조선통신사는 츠시마 번주가 에도로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오사카까지는 해로로 가고, 중간의 각 번에서는 접대나 화물을 움직이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접대를 맡은 후쿠야마 번은 토모노우라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후쿠젠 사를 숙박소로 하였습니다. 객전으로부터 풍경은 훌륭하였고, 통신사는 「日東第一形勝」(조선으로부터 동쪽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의 장소)라고 상찬하였습니다. 문화교류의 장으로 있던 객전은 후의 통신사에 의해 「대조루(對潮樓)」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④ 조선통신사가 숙박했던 대조루(對潮樓)로부터 토모노우라의 풍경(히로시마현 후쿠야마 토모초)
- ⑤ 후쿠야마 번사와 교류하는 조선통신사(토모노우라 그림 병풍, 대조루 이시즈리 병풍,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토모노우라 역사민속자료관 소장)
- ⑥ 나하항의 성황(류큐무역 도병풍, 시가 대학 경제학부 부속 사료관 소장) 장식꽃이를 세운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⑦ 에조 의복을 입은 아이누 수장(에비수 열상/어군 에조노도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중앙도서관 소장) 에조니시키는 아이누민족의 교역으로 에조치로 가져왔습니다.

<공책> 에조치에는 아이누 사람들의 어떠한 교역의 유적을 읽고서 생각해봅시다.

<책상> 쇄국 하에 일본이 어떠한 대외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상대편을 정리해봅시다.